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2. 28.(화) 06:00 ~ 2023. 3. 1.(수) 23:00
- 상담건수¹⁾: 1,206건

II. 주요의견 내용

○ 편성 호평(6명)

-프로그램명 : 「중계방송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방송일시 : 2023. 3. 1.(수) 1TV (10:00-11:00)

104주년을 맞이한 3.1절 기념식이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렸다. KBS 1TV 중계를 통해 기념식을 시청했고,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순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한 선열들의 3.1 운동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기념식을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 방송 제언(6명)

-프로그램명 : 「특집 대담 공영방송 50년 미래를 묻다」

-방송일시 : 2023. 2. 28.(화) 1TV (22:00-23:00)

2023년은 KBS가 공영방송으로 출범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이날 전문가들과 함께 공영방송의 역할과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았다. 시청자들이 느끼기에 OTT 시대에 KBS가 경쟁에서 앞서가려면 1TV에서는 공정함이, 2TV에선 유쾌함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단 없는 전문가들의 대답은 탁상 공론처럼 느껴져 답답했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없음.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206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677	40	-	-	489	1,206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616	345	33	-	1	211	1,206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286	920	-	1,206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922	1	114	169	1,206

시청자 의견	문 의
【편 성】 ○ 「중계방송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 편성 호평 【시사·교양】 ○ 「특집 대담 공영방송 50년 미래를 묻다」 - 방송 제언 ○ 「2TV 생생정보」 - 방송 제언 【연예·오락】 ○ 「공영방송 50주년 기획 가요무대」 - 방송 제언 【드라마】 ○ 월화드라마 「두뇌공조」 - 방송 호평 【라디오】 ○ 「홍사훈의 경제쇼」 - 진행자 호평 ○ 「주진우 라이브」 - 진행자 제언 ○ 「이상호의 드림팝」 - 방송 호평	【방 송】 ○ 「2TV 생생정보」 - ‘산나물 정식’ 연락처 문의 51건 ○ 「공영방송 50주년 기획 6시 내고향」 - ‘전통장 문의’ 연락처 문의 47건 ○ 「공영방송 50주년 특집 당신의 KBS 우리의 50년」 - ‘방송 제언’ 38건 ○ 「공영방송 50주년 기획 아침마당」 - ‘방송 제언’ 27건 ○ 「공영방송 50주년 기획 가요무대」 - ‘방청’ 문의 18건 【기 술】 ○ 「수신기술」 문의 1건 【경 영】 ○ 「홈페이지」 문의 56건 ○ 「수신료」 문의 11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21건 ○ 「전화교환」 문의 22건 ○ 「주차」 문의 2건 외 2건 【기 타】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69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편성 호평	○ 「중계방송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6명) - 2023. 3. 1.(수) 1TV (10:00-11:00) - 104주년을 맞이한 3.1절 기념식이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 서 열렸다. KBS 1TV 중계를 통해 기념식을 시청했고,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순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경건한 마 음으로 지켜보았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한 선열들의 3.1 운동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기념식을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시사 · 교양]	
방송 제언	○ 「특집 대담 공영방송 50년 미래를 묻다」 (6명) - 2023. 2. 28.(화) 1TV (22:00-23:00) - 2023년은 KBS가 공영방송으로 출범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이날 전문가들과 함께 공영방송의 역할과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았다. 시청자들이 느끼기에 OTT 시대에 KBS가 경쟁에서 앞서가려면 1TV에서는 공정함이, 2TV에선 유쾌함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단 없는 전문가 들의 대답은 탁상공론처럼 느껴져 답답했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방송 제언	○ 「2TV 생생정보」 - 2TV (월-금) (18:30-19:50) -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방 송이 전반적으로 먹거리 소개에 치우친 것 같아 아쉽다. KBS 프로그램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비만이 건강을 해치는 질병이라고 경고하면서, 정작 KBS 프로그램들 중엔 이른바 '먹방'을 부추기는 콘텐츠가 많다. 음식 외에도 여행, 건강, 살 림살이 등 더욱 다양한 소재를 담아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의견	세부내용
[연예 · 오락]	
방송 제언	○ 「공영방송 50주년 기획 가요무대」 ‘2월 신청곡’(3명) - 2023. 2. 27.(월) 1TV (22:00-22:55) - 매달 말에는 시청자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진다. 이날 방송 역시 신청곡으로 채워졌는데, 다른 날들에 비해 선곡이 좋지 않아 감동이 떨어졌다. 그뿐 아니라 출연자들 또한 사전준비가 덜 된 듯 실력이 부족해 보여 실망스러웠다. 1985년부터 이어오는 가요의 명가답게 제작진들과 출연진 모두 분발하여 조금 더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드라마]	
방송 호평	○ 월화드라마 「두뇌공조」 [최종회](3명) - 2023. 2. 28.(화) 2TV (21:50-23:00) - 차태현 씨와 정용화 씨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고, 국내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뇌과학 수사극’이라는 장르가 신선해 재미있게 시청했다. 조금 더 길게 방영되었으면 했는데, 16부작을 끝으로 종영되어 아쉬웠다. 그렇지만 방송 말미에 두 사람이 새 사건의 공조를 암시해 시즌2를 기대할 수 있어 아쉬움이 덜하다. 그동안 고생한 배우들과 제작진에게 감사드린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라디오]	
진행자 호평	○ 「홍사훈의 경제쇼」 - 2023. 2. 28.(화) 1R (16:05-16:55) - 홍사훈 기사를 좋아해서 해당 방송을 열심히 청취한다. 발언한 마디 한 마디가 꾸밈없고 진솔해 신뢰가 가며, 경제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주어 항상 고맙게 듣고 있다. 계속해서 청취자들이 궁금해 하는 각 분야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